

中國, 대만의 WTO 가입과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 산업지원부 -

카타르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각료회의 (01.11.9~11.13)에서 중국은 11.10(토) WTO가입 승인이 확실시 되었고, 11.11(일) 대만도 WTO에 가입될 것으로 보이는 바, 중국과 대만의 WTO가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산업지원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편집자)

중국은 1986년 WTO前身인 GATT체제 하에 서 가입을 신청한 후, 지난 2001.9.13일 맥시코와의 협상 타결을 끝으로 37개국과의 양자 협상을 완료하고, 01.9.17일 WTO 가입의정서 작성을 마무리함으로써 금번에 WTO 가입을 맞게 되었다.

대만은 90년 GATT 가입신청후 한국·미국 등 26개국과의 양자협상 체결 및 의정서 작성 등을 99년에 마쳤으나, 중국 가입후 대만가입을 허용한다는 WTO의 방침에 따라 중국과 함께 가입승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대만은 정식국가가 아닌 별도관세지역으로 가입 ("Chinese Taipei" 명칭 사용)

양국은 향후 국내비준 절차를 거쳐 비준서를 WTO에 기탁하면 이로부터 30일후 정식 회원국 자격이 발효된다.

중국은 WTO 가입으로 관세인하(제조업 평균

관세율 : (현재) 16.8% → (2005) 9.4% 및 비관세장벽(수입허가 및 쿼터, 입찰관행, 내국민 대우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금융·보험, 통신, 유통 등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등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크게 확대하게 될 것이다. 한편, 중국도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최혜국(MFN) 대우를 받게 되며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으로부터 對개도국 일반특혜관세 적용, 중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각종 수입물량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경제가 본격적으로 global standard에 의해 운영되게 됨을 의미하는 바, 이를 계기로 세계적으로는 교역량이 증대되고, 자국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따른 수출확대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대 등으로 경제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는 WTO 가입 후 중국의

수출이 매년 2.4%p씩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1979~2000년중 연평균 수출증가율 16.3%)

- * 영국 Economist지는 중국의 WTO 가입 5년후 對중국 외국인직접투자(00년 407 억불)가 2배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다수의 예측기관들은 WTO 가입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3%p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경제성장률 상승 전망
(2005년까지 연평균)
 - World Bank : 2~3%, ADB : 1~2%, Goldman Sachs : 0.5%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나라에는 기회와 위협이라는 양면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의 측면에서는

첫째, 중국의 관세율 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와 WTO 가입에 따른 경제성장을 상승 등으로 對中 수출증대가 예상된다.

- * 한국은행은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2002~2008년간 우리나라의 對中 純수출 이 연평균 11억불 증가할 것으로 전망

원료·섬유사·직물, 현재 관세율 25.4%→2005년 10.3%), 전기·전자제품(18.1%→9.0%), 자동차 및 부품(41.3%→14.7%), 플라스틱(11.4%→6.9%), 기계장비(15.6%→10.0%) 등 중국의 높은 시장성장이 예상되고 관세율이 큰 폭으로 인하되는 제품의 對中 수출이 호조를 보일 전망이다.

둘째,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서비스업의

개방이 대폭 확대되고, 외자기업에 대한 대외무역권 부여, 중국산 원부자재 사용의무 비율 및 수출이행 의무비율 폐지 등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내국민대우로 우리기업의 對중국 진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로는 종래의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투자 이점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본·기술집약적인 중화학공업과 외국인 투자제한이 크게 완화되는 금융·보험, 통신, 유통업 등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셋째,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WTO 규범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의해 해결이 가능해 진다. 따라서, 최근의 韓中간 마늘분쟁에서 나타난 것처럼 쟁무협상에서 한국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넷째, 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의 전반적인 대외교역환경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본격화될 뉴라운드 등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가 엇갈리는 다자간 회의에서 중국은 사실상 개도국의 대표로 참여해 개도국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협의 측면에서는

첫째, 중국시장에서 중국 및 선진국과의 경쟁 격화가 예상된다. 중국내 제조업의 성장에 따른 자국산 제품 생산증가 및 선진기업의 對中 진출 확대로 한국기업은 종전보다 훨씬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며, 특히, 가격경쟁이 심화되면 對中 수출물량은 늘어나더라도 채산성을 악화될 전망이다.

둘째, 중국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제3국 시장에서 韓中간 경합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에도 이를바 '시장과 기술의 교환' 방식으로 대외개방을 지속할 것으

로 전망됨에 따라 선진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중국기업과의 합자기업 설립 등을 통해 중국기업에 선진기술을 상당부분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로는 가전, 섬유, 신발, 기계 등은 세계 시장에서 이미 한국을 추월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과 정보통신 등 IT산업 모두에서 경합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세계시장에서의 韓中간 시장점유율 역전현상 또는 경합심화는 한국기업의 고부가가치화 또는 글로벌 생산기지화 전략 추구를 위한 선택의 결과에 기인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산업의 전반적인 국제경쟁력이 중국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韩中간 경쟁관계는 韩中간 보완관계를 염두에 둔 입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중국의 WTO 가입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에 집중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기·전자, 통신업종 등은 중국의 기술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시장규모가 더 큰 중국으로 신규투자를 전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2001.2월 영국의 컨설팅업체인 A.T.Kearney사가 세계 1,000대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향후 3년간 외국인 직접투자 유망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국이 2~3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한편, 대만의 WTO 가입은 한-대만간 과실교역의 재개, 국적항공기 운항 재개, 한국船社의 일-대만항로 취항 재개 등 92년 단교이후 우리나라의 對대만 경제현안들을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동차 쿼터 확대·폐지 및 관세의 단계

<WTO 가입에 따른 중국의 산업별 시장개방 주요내용>

| 분야별 | 합의 내용 |
|-----------|--|
| 동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관세율을 2004년까지 14.5%로 인하 ○ 밀, 옥수수 등 주요 농산물 수입물량을 2005년까지 대폭 확대 ○ 옥수수, 쌀 등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
| 제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관세율을 2005년까지 9.4%로 인하 ○ 무역·유통시장 관련 규제 철폐 |
| 금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가입 후 지점설치에 대한 지리적 제한을 점진적으로 폐지하여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 ○ WTO 가입 후 각각 2년내 및 5년내에 외국은행에 대해 중국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위안화 소매금융 영업 허용 |
| 보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가입 즉시 생명보험은 50%, 손해보험·재보험은 51%까지 합작투자를 허용하고 2년 이내에 전액출자를 허용 |
| 증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계 펀드운영회사에 대해 중국기업과의 합작 펀드운영회사 설립을 허용 (외국기업은 합작증권사를 통해 중국기업에 서비스 제공, 외국인은 합작법인에 소액주주로 참여하여 중국 국내주식 및 채권의 인수와 외화표시 유가증권의 인수 및 매매 등에 참여) |
| 통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통신 및 유선통신은 WTO 가입 즉시 49%까지, 부가가치통신은 2년 이내에 50%까지 합작투자 허용 ○ 위성사업자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개방 (외국인투자한도를 2003년 25%, 2005년 35%, 2006년 49%로 상향조정) |
| 유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가입후 3년 이내에 운수, 도소매 등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 제한 폐지 |
| 관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가입후 3년 이내에 호텔에 대한 100% 외국인투자 허용 |
| 투자 및 기술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및 수입 허가시 기술이전, 국산사용 의무비율, 수출이행 의무비율 등의 조건을 폐지 |

적 인하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수출증대가 예상된다.

한국산 소형차(9인승 이하 승용차, 3.5t 이하 트럭)의 연간판매량(9,783대)을 상향조정하고, WTO 가입후 8년 뒤에는 소형자동차 시장을 완전 개방할 예정이다.

현재 평균 6%인 공산품 수입관세를 2004년까지 4.15%로 인하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위협요소는 최소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우선 중국시장의 수입수요 확대와 WTO 가입에 따른 관세인하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무역확대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섬유류, 전기·전자, 자동차 등 중국의 WTO 가입으로 관세율이 큰 폭으로 인하되는 제품의 对중국 수출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구매력이 높은 중국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가제품의 수출을 확대하는 등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을 활용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양국간 산업·투자협력을 강화하여 무역마찰을 줄이면서 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호 보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한중간 장관급 협의체인 「한중산업협력위원회」와 「한중투자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전통적 제조업은 물론 IT, 전자상거래 등의 첨단분야 및 에너지·자원분야 등의 실질적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상호 투자확대와 對中 투자여건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對中투자에 있어서 종래의 생산기지 이전형 투자에서 중국 내수시장 진출형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의 일환으로 지난 8월부터 유관기관, 연구소, 협회 등 각계 전문가로 「중국시장 활용 대책반(반장 : 무역투자실장)」을 구성하여 WTO 가입 이후 중국경제를 전망하고, 업종별 중국시장 활용방안을 수립중에 있다.

韓中 교역 및 투자현황

가. 韓中 교역현황

■ 연도별

(단위 : 억불, %)

| 구 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1~9 |
|----------|------|-----------------|------------------|-----------------|-----------------------------------|
| 한국 통계 | 총 계 | 236.9 (18.9) | 184.2 (-22.2) | 225.5 (21.1) | 312.5 (38.6) 233.7 (2.2) |
| | 對中수출 | 135.7 (19.3) | 119.4 (-12.0) | 136.8 (14.6) | 184.5 (34.9) 137.0 (1.5) |
| | 對中수입 | 101.2 (18.5) | 64.8 (-35.9) | 88.7 (36.8) | 128 (44.3) 96.7 (3.0) |
| | 무역수지 | 34.5 | 54.6 | 48.2 | 56.5 40.3 |

FOCUS

이 달의 주제

| 구 분 |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1~9 |
|-------|------|-----------------|------------------|-----------------|-----------------|----------------|
| 중국 통계 | 총 계 | 240.5 (20.3) | 212.5 (-11.6) | 250.5 (17.9) | 345 (37.7) | 267.5 (6.2) |
| | 對韓수출 | 91.2 (21.5) | 62.3 (-31.7) | 78.2 (25.4) | 112.9 (44.4) | 91.2 (11.7) |
| | 對韓수입 | 149.3 (19.6) | 150.2 (0.6) | 172.3 (14.7) | 232.1 (34.7) | 176.2 (3.5) |
| | 무역수지 | -58.1 | -87.9 | -94.1 | -119.2 | -85.0 |

※ 중국은 홍콩을 통한 간접교역도 통계에 포함

※ 한국의 對香港 수출(억불) : (98)92.6→(99)90.5→(00)107.1→(01.1~9)71.2

■ 품목별(10대 수출입 품목, 2000년)

(단위 : 백만불, %)

| 구 分 | 對中 수출 | | | 구 分 | 對中 수입 | | |
|--------|-------|------|------|-------|-------|------|------|
| | 금액 | 증가율 | 비중 | | 금액 | 증가율 | 비중 |
| 유기화학품 | 3,775 | 38.3 | 20.5 | 전자부품 | 1,941 | 21.7 | 15.2 |
| 전자부품 | 2,384 | 60.8 | 12.9 | 농산물 | 1,373 | 83.6 | 7.6 |
| 유류제품 | 1,829 | 41.5 | 9.9 | 섬유제품 | 976 | 74.4 | 7.5 |
| 직물 | 1,612 | 18.1 | 8.7 | 산업용전자 | 964 | 84.7 | 6.9 |
| 철강제품 | 1,307 | 22.8 | 7.1 | 철강제품 | 879 | 61.0 | 6.5 |
| 일반기계 | 1,121 | 51.2 | 6.1 | 광물성연료 | 829 | 55.9 | 2.9 |
| 산업용전자 | 977 | 91.1 | 5.3 | 직물 | 716 | 17.8 | 5.6 |
| 가죽제품 | 765 | 25.9 | 4.1 | 생활용품 | 525 | 50.2 | 4.1 |
| 가정용전자 | 459 | 54.3 | 2.5 | 수산물 | 486 | 17.7 | 3.8 |
| 플라스틱제품 | 408 | 13.5 | 2.2 | 가정용전자 | 380 | 51.5 | 3.0 |

나. 韓中 투자현황

<우리나라의 對中투자>

(단위 : 전, 백만불, %)

| 구 分 | | 1997 | 1998 | 1999 | 2000 | 01.1~9 | 누 계 |
|----------------|----|------------------|-----------------|------------------|-----------------|------------------|--------|
| 전체(A) | 금액 | 3,227 (-23.4) | 3,869 (19.9) | 2,554 (-34.0) | 3,679 (44.0) | 1,003 (-68.1) | 30,382 |
| | 건수 | 1,299 (-10.5) | 585 (-55.0) | 1,029 (75.9) | 1,870 (81.7) | 1,303 (-6.9) | 13,467 |
| 對중국(B) | 금액 | 633 (-24.3) | 631 (-0.3) | 308 (-51.2) | 307 (-0.3) | 278 (18.8) | 4,919 |
| | 건수 | 623 (-14.5) | 242 (-61.2) | 431 (78.1) | 692 (60.6) | 622 (25.7) | 5,568 |
| 비중(%) (B/A) | 금액 | 19.6 | 16.3 | 12.1 | 8.3 | 27.7 | 16.2 |
| | 건수 | 48.0 | 41.4 | 41.9 | 37.0 | 47.7 | 41.3 |

〈중국의 對韓투자〉

(단위 : 전, 백만불, %)

| 구 분 | | 1997 | 1998 | 1999 | 2000 | 01.1~9 | 누 계 |
|----------------|----|------------------|-----------------|------------------|------------------|------------------|--------|
| 외국인투자 전체(A) | 금액 | 6,971 (117.6) | 8,852 (27.0) | 15,541 (75.6) | 15,697 (1.0) | 9,712 (-6.9) | 74,449 |
| | 건수 | 1,055 (9.1) | 1,400 (32.7) | 2,104 (50.2) | 4,141 (96.8) | 2,648 (-15.2) | 20,583 |
| 중국의 對韓투자(B) | 금액 | 7 (16.9) | 8 (28.6) | 27 (217.2) | 76 (187.7) | 50 (-19.4) | 202 |
| | 건수 | 76 (20.6) | 97 (27.6) | 323 (233.0) | 1,165 (260.7) | 706 (-23.1) | 2,554 |
| 비중(%) (B/A) | 금액 | 0.1 | 0.09 | 0.2 | 0.5 | 0.5 | 0.3 |
| | 건수 | 7.2 | 6.9 | 15.4 | 28.1 | 26.7 | 12.4 |

韓— 대만 교역 및 투자현황

가. 韓— 대만 교역현황

(단위 : 억불, %)

| 구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1~9 |
|--------|-----------------|-----------------|----------------|----------------|-----------------|
| 對대만 수출 | 46.1 (15.2) | 51.4 (11.4) | 63.5 (23.5) | 80.3 (26.5) | 43.6 (-29.3) |
| 對대만 수입 | 24.2 (-11.2) | 16.7 (-31.0) | 29.7 (77.9) | 47.0 (58.2) | 31.2 (-5.7) |
| 무역수지 | 21.9 | 34.7 | 33.8 | 33.3 | 12.4 |

나. 韓— 대만 투자현황

(단위 : 전, 백만불)

| 구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1~9 | 누계 |
|---------------|------|------|------|------|----------|-------|
| 대만의 對韓투자 | 건수 | 11 | 21 | 41 | 73 | 232 |
| | 금액 | 1.1 | 6.2 | 31.7 | 250.9 | 688.5 |
| 한국의 對대만 투자 | 건수 | 3 | 7 | 8 | 10 | 60 |
| | 금액 | 7.8 | 18.7 | 6.4 | 13.5 | 90.0 |